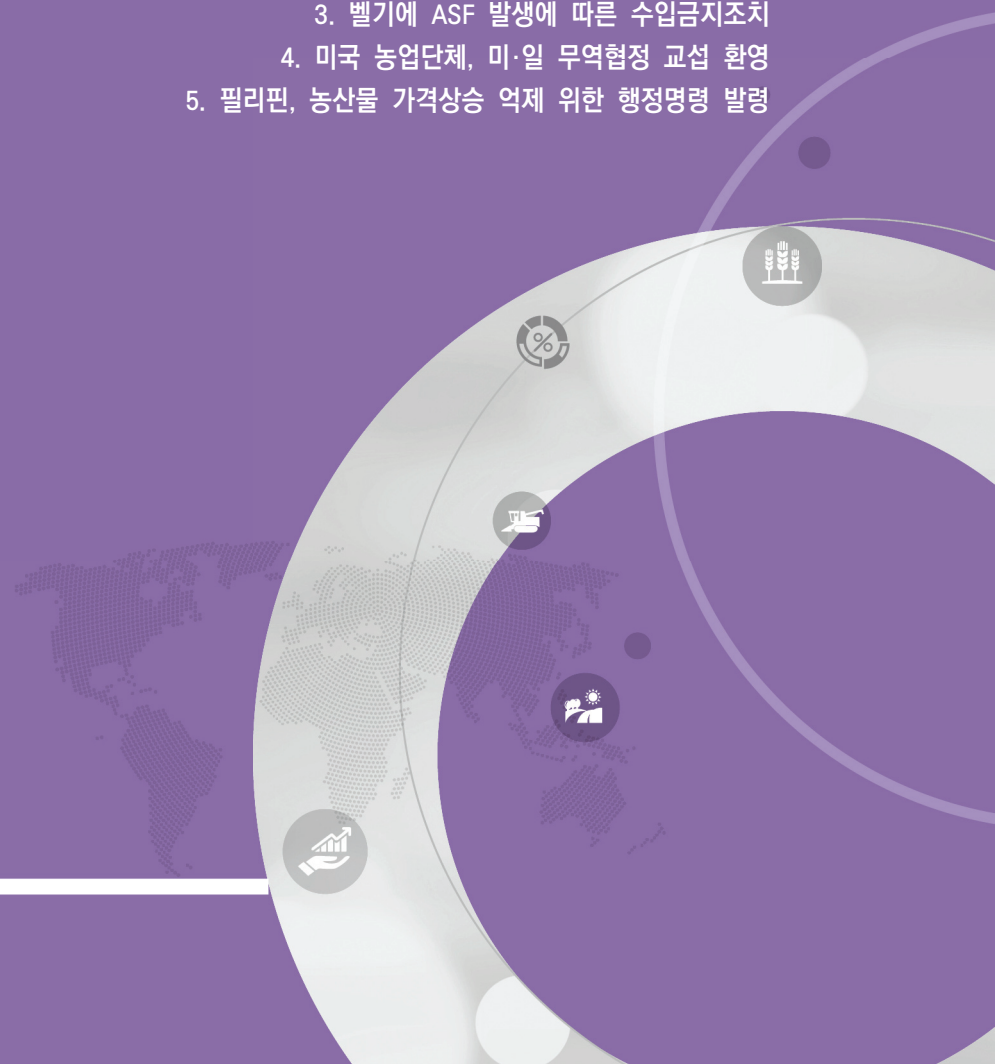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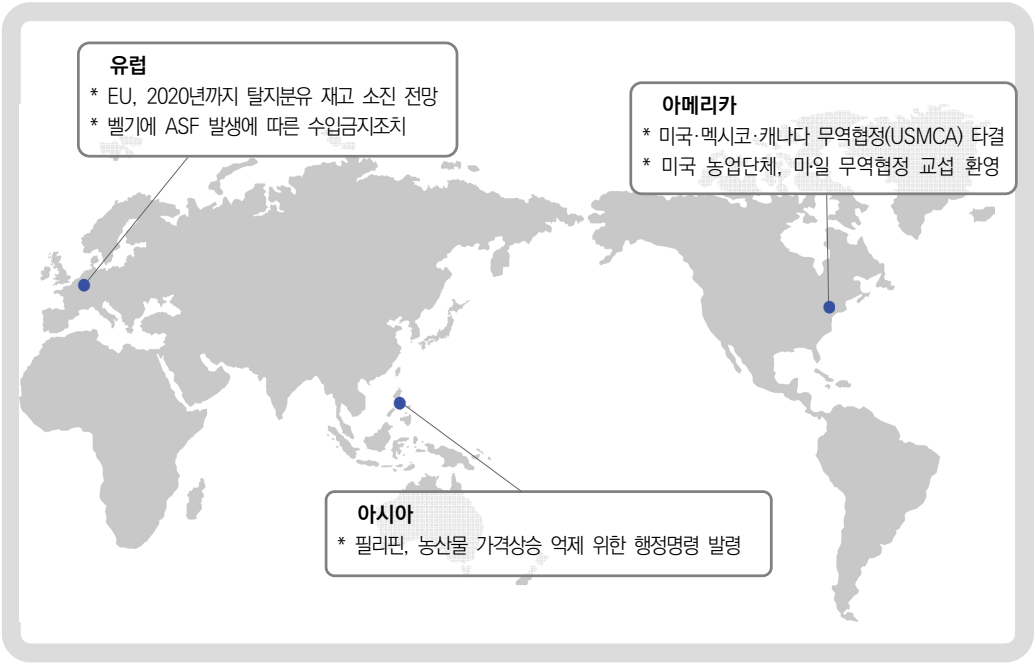
Part 6
국제 농업 정보

1.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타결
2. EU, 2020년까지 탈지분유 재고 소진 전망
3. 벨기에 ASF 발생에 따른 수입금지조치
4. 미국 농업단체, 미·일 무역협정 교섭 환영
5. 필리핀, 농산물 가격상승 억제 위한 행정명령 발령





국제 농업 정보 (2018. 10)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타결

❍ 미국 농무부 장관 Sonny Perdue는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 USMCA) 타결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함.

- 2018년 10월 1일 미국, 멕시코, 캐나다는 새로운 무역협정인 USMCA를 타결함.
- 이는 1994년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새로운 협정으로 '신(新) 나프타'로도 불림.[1)]

1) 한경경제용어사전(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80552&cid=42107&categoryId=42107) (검색일: 2018.10.05.)

❍ 미국의 주요 무역파트너인 멕시코와 캐나다간의 새로운 무역협정인 USMCA는 농업부문을 포함한 전반적인 미국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미국은 USMCA를 통해 이러한 주요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확보하였으며, 두 국가 간 매우 생산적이고 통합된 농업관계를 유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함.

❍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이 협약은 캐나다의 불공정한 '7등급' 우유 가격정책을 없애고 미국 유제품을 캐나다로 추가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캐나다의 새로운 공급관리시스템에 새로운 규정을 부과함.

❍ 또한 이 협정은 미국의 가금류 및 달걀 생산업자들을 위한 시장접근 제한의 유지 및 확대와 캐나다의 차별적인 밀 등급 결정체계를 규제하며 미국의 밀 재배자들이 수입 밀에 대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보호하는 방안을 다루고 있음.

❍ 미국 농무부 장관 Sonny Perdue는 새롭게 체결한 USMCA와 KORUS(Korea-U.S. Free Trade Agreement; 한미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일본과의 무역협정에 대한 지속적인 진전을 언급하며, 이는 유럽연합과 중국과 같은 다른 무역 상대국과의 추가적인 무역협정 체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함.

※ 자료: USDA
(https://www.usda.gov/media/press-releases/2018/10/01/secretary-perdue-statement-united-states-mexico-canada-agreement) (2018.10.01.)

EU, 2020년까지 탈지분유 재고 소진 전망

❍ 유럽 무역관계자들은 EU의 축적된 탈지분유(Skimmed Milk Powder, SMP) 비축량이 2020년 초까지 완전히 소진될 수 있다고 경고함.

❍ EU는 여전히 25만 톤이 넘는 탈지분유를 비축하고 있지만 정기판매로 거래자들은 2020년까지 비축물이 계속 처분될 것으로 예상함.

❍ 가장 최근의 입찰일인 지난 9월 20일 오직 8,983톤의 탈지분유가 최소판매가격인 1톤당 1,230유로에 거래됨.

- 유럽의 탈지분유가격은 지난여름 보다 약세를 보이며 거래이익이 악화되고 있음.

❍ 유럽의 한 무역업체는 현재 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과 브렉시트(Brexit)로 인한 많은 불안감이 존재한다고 지적함. 구매자들은 미리 많은 양을 확보해두기보다 일종의 그날그날 소량만을 구매하는(hand-to-mouth buying) 전략을 보이고 있다고 함.

- 한편, 기업들은 탈지분유의 가격이 지금과 같이 다시 낮아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은 자신들의 비축량 확보를 위해 정부개입물량을 사들이고 있다고 지적함.

❍ EU집행위원회는 2018년 12월을 제외한 남은 기간 지금처럼 매달이 아닌 2주마다 입찰을 실시할 것을 약속함.

- 이는 거래자들에게 더 많은 정기적인 입찰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입찰가격이 시장동향에 따라 더욱 밀접하게 조정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EU집행위원회는 공식적으로 탈지분유 재고가 소진되는 목표 일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며, 만약 2020년까지 재고가 소진될 경우 매 입찰 시 약 1만 톤의 상당한 양이 매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함.

※ 자료: IEG Policy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17875/EU-SMP-stocks-may-only-be-cleared-by-2020) (2018.10.04.)

벨기에 ASF 발생에 따른 수입금지조치

❍ 벨기에에서 약 4주 전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 바이러스가 발견되어 17개국이 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기타 관련제품 수입을 금지함.

- 벨기에 식품안전국(AFCSA)이 발표한 정보에 따르면 중국, 일본, 한국, 필리핀은 벨기에 전역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를 취하고 있음.
-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세르비아,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은 벨기에산 살아있는 돼지의 수입과 육종소재(breeing material; 육종의 근본이 되는 재료)의 수입을 금지함.
- 벨라루스는 더 나아가 벨기에산 동물사료의 수입까지 제한함.
- 이러한 국가들은 벨기에가 비EU 시장으로 매년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돼지내장 등의 약 60%를 차지함.

❍ EU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은 바이러스가 발생한 특정 지역으로부터의 수입만을 금지하는 '지역화 원칙'에 따름.

❍ 유럽 육류가공업체들은 EU집행위원회에 이러한 지역화 원칙을 무시한 국가들의 수입금지조치에 대해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함.
- 벨기에 식품안전국은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벨기에의 한정된 지역에서만 멧돼지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지적함. 이는 벨기에의 사육용 돼지는 바이러스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 또한 벨기에서 사육되는 돼지는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지역으로부터 약 200km 떨어진 곳인 북부지방 플랜더스(Flanders)에 있음을 지적하며 벨기에산 돼지고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강조함.

❍ 벨기에 돼지고기 가격은 지난 9월 13일 멧돼지에게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약 20% 하락함.

❍ 지금까지 벨기에에서는 약 53마리의 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에 대한 양성반응을 보였음.
- 이들은 모두 프랑스 국경 부근인 룩셈부르크 남부지방의 같은 지역에서 발견됨.

❍ 벨기에산 돼지관련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를 취하는 국가들 중 일부는 돼지고기가공식품(바이러스를 파괴할 정도로 높은 온도에서 가공처리함)에 대한 수입은 허용하고 있음.

- 특히 콜라겐과 젤라틴의 수입은 여전히 허용되고 있음.

❍ 일부 EU국가들은 벨기에의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특히 체코산 돼지고기에 대해 더 엄격한 검사를 고려하고 있음.

- 그러나 EU집행위원회는 기존의 제한조치 및 검사방법이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엄격한 검사조치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음.

※ 자료: IEG Policy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17924/Belgian-ASF-outbreak-import-bans-in-detail) (2018.10.09.)

미국 농업단체, 미·일 무역협정 교섭 환영

❍ 미국 농업단체가 미국과 일본의 양자무역협상인 물품교역협정(Trade Agreement on Goods, TAG) 교섭 합의에 대해 환영함.

- 미국 농업단체는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과 일본과 유럽연합의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을 염두하고 먼저 일본시장에서 경쟁상대국과 동등한 조건 확보를 위해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함.

❍ 미국 최대의 농업인연맹(American Farm Bureau Foundation)회장은 지난 9월 27일 성명을 통해 TAG교섭은 미국 농업인들에게 좋은 소식이며, 수출 확대의 큰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함.

- CPTPP, EPA 등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협정으로 일본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될 것임을 지적하며 TAG 합의가 급선무라고 강조함.

❍ 미국의 전국돼지고기생산자협의회도 지난 9월 26일 성명을 통해 TAG교섭 확정에 대해 환영과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신뢰를 표명함.

- CPTPP나 EPA 발효로 경쟁국들이 관세인하 혜택을 누리는 반면 미국은 일본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잃을 우려가 있던 중 TAG 교섭은 미국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일이라고 강조함.

❍ 쇠고기나 돼지고기 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된 미국 육류수출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다른 경쟁국과 조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세 이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함.
  - 관세인하가 추진된다면 일본으로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출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조속한 교섭의 진전을 요구함.

❍ 일본은 CPTPP나 유럽연합과의 EPA에서 현행 38.5%의 쇠고기 관세를 9%까지 인하하는 등 큰 폭의 자유화를 받아들이고 있음.

※ 자료: 일본농업신문(https://www.agrinews.co.jp/p45350.html) (2018.09.29.)

필리핀, 농산물 가격상승 억제 위한 행정명령 발령

❍ 필리핀 두테르테(Duterte) 대통령은 지난 9월 21일 국내 농산물 가격 상승 억제와 농산물 수입확대를 위한 행정명령(Administrative Order No.13)을 발령함.
  - 쌀, 설탕, 육류, 채소, 생선 등의 수입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없애고, 수입절차를 가속화함.

❍ 이는 지난 8월 소비자 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전년 동월대비 6.4%로 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과 9월 중순 태풍 22호로 인한 공급 감소로 농산물 가격이 더욱 상승한 것을 염두에 둔 것임.

❍ 행정명령에 따라 승인을 받은 수입품에 대해서는 수입신청 절차가 간소화되며, 수입 시 농산물 하역이 우선시 됨.

❍ 또한 쌀 수입업자를 포함한 각종 사업자에 대한 허가 및 인가제도도 완화됨.

❍ 설탕을 원료로 사용하는 산업계의 설탕에 대한 직접 수입이 일시적으로 허가됨.

❍ 그 밖에 국내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최소시장접근 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농산물에 부과되는 관세 등을 절감하거나 면세하는 조치를 취함.

※ 자료: JETRO
(https://www.jetro.go.jp/biznews/2018/09/ed55a6e37500f93b.html)
(2018.09.28.)

자료작성 : 홍예선 연구원